

지역 소식통

부안 보안면, 75세 이상  
고령층 3차 접종 추진

보안면은 75세 이상 고령층의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위해 보안보건지소 방문접종을 추진하였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와중에 오미كرون 신종변이까지 덮쳐 백신의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방문접종을 시행하였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 수단이 없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전에 추가접종 희망자를 파악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마을별로 접종 시간대를 배분하였으며 현장 접수 등을 통해 120여명이 추가접종을 마쳤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면 자율방범대가 상시 대기하였으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3일간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반응을 살피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철호 보안면장은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우리면에 방문접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농촌개발대학, 올해  
87명 농생명 리더 양성

고창군이 지역농업 리더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 수료생 87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2년째 수료식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군은 87명의 수료생들에게 축하편지와 수료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축하와 격려를 대신했다.

고창농촌개발대학은 ▲치유농업과, ▲농업고장물과, ▲저탄소농업과, ▲북부지역과 등 총 4개 정규과정과 ▲토종농산과, ▲딸기과 등 2개의 특별과정으로 운영. 전문강사의 이론 및 현장교육, 컨설팅 및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 선도자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규모와 기간 등을 조정하면서 열렸다.

특히 바쁜 농번기철에는 야간 교육으로 전환해 농사일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읍시, 2022년부터 전북도 최초 ‘청년발전기금’ 운용

정읍시가 2022년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정읍시 청년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한다.

시는 ‘청년 기본법’ 및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명시한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 구현을 위해 내년도부터 ‘청년발전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매년 10억원 씩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2022년에는 청년발전기금 10억원을 편성해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조성사업 관련 행사 모습

형성과 창업 발전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이하 안전연)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두 기관은 지난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창업지원 현황과 인프라, 기획사업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안전연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전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과 시설 인프라, 전문기술 등을 이천해 청년들이 지역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상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조, 입주 청년 모집·관리 등 지역 청년들의 창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전지용 동박을 생산하고 있는 SK넥셀리스와 협력해 청년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공유가게를 통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가게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하고, 청년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청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경우 청년발전기금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 생태계 제반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은 “청년 능력 개발과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청년 정책을 시행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축산악취개선사업 우수지역 현장성과공유회 열어

전국 축산관련 공무원 고창서 개선 모범사례 배워

고창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오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악취개선사업 우수지역 현장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고창군 이주철 부군수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지원과장,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 전북도 김추철 축산과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직접 참석이 어려운 시·도 공무원과 70여개 기초 지자체는 영상회의로 함께했다.

앞서 고창군은 축산악취개선사업 평

가에서 전국위를 차지했다. 실제 축산악취민원역시 전년도(6~9월) 대비 27%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이에 고창군 정병진 축산정책팀장이 고창군 축산악취저감 지역협의회 운영과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또 공무원 박태수 대표(농도축산)와 축산악취개선사업 우수공무원(김봉진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축산환경관리원 평가위원(8명)이 동행한 가운데 고창군 축산악취개선 중점관리농가로 지정된 아산편 소재 양돈

농가(2개소)를 찾았다.

악취관리계획수립과 지속적인 악취저감 효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실현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전체 행사를 마쳤다.

고창군 이등대 축산과장은 “지역협의회 회원대표를 확대해 내년에는 농가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불편과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을 서로 이해해 주민과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변산마실길 5코스 탐방길 생태숲 조성 새단장

부안군은 지난 7월 착공한 부안 변산마실길 생태숲 보강사업을 완료해 야생화 단지 등 볼거리를 마련하고 일부 단절된 탐방로 구간을 연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부안 변산마실길 생태숲 보강사업은 전북도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를 포함 총 2억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부안 변산마실길 5코스는 산들로 인

해 탐방 데크 일부 구간이 소실돼 탐방객들이 부득이 차도를 이용한 수밖에 없어 교통안전에 취약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에 데크 계단을 설치해 서해안권 대표 지질명소인 솔섬부터 변산로탐수원까지 장장 1.5km 구간을 차량 위험 없는 안전한 탐방로로서 새단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 변산마실길 3코스 하삼전 망대 인근과 5코스 주차장 전망대에 꽃무릇 단지를 조성해 가을철 변산마실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변산마실길을 이용하는 군민 및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안전한 탐방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에서는 지난 14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부안군체육진흥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다.

## “국제 ·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출범

부안군에서는 지난 14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부안군체육진흥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가 88올림픽 탁구 금메달 리스트인 양영자 감독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안군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과 예산 등 주요업무와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부안

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체육관계자 및 전문가 등 11명(당연직 5, 위촉직 6)으로 구성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 2년간 체육전문가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지혜와 고견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부안군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공공자원 서비스 평가 2년 연속 우수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평가(243개 지자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시설물 및 물품 등)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주민서비스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얼마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연간 운영계획 수립, 전담 공무원 지정, 공유누리 등록 확대, 이용률,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 홍보(온·오프라인 홍보)

▲서비스 품질 향상(서비스 만족도, 국민평가단 만족도) ▲우수 시책 추진(효과성, 시민 체감도, 다양성·창의성, 확산 가능성) 등 총 4개 평가항목 12개 정량·정성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자원 확보와 개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공자원 개방시설 실태 조사와 일제 정비 등을 통해 문화시설과 주차장, 대여 물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66개의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자원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도움이 되는 내용도 등록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지속적인 등록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